

중국 관광업계 동향(24. 5월)

□ 중국 정부 정책

- 홍콩·마카오 개별 관광 통행증 발급 가능 도시 8개 추가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5.27(월)부터 홍콩·마카오 개별 여행 가능 도시 명단에 타이위안, 후허하오터, 하얼빈, 라싸, 란저우, 시닝, 인촨, 우루무치 8개 도시 추가(총 59개 도시). 해당 지역 호구 소지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홍콩·마카오 '개별 관광(G) 통행증' 발급 가능
- 중국 외교부, 12개국 대상 일방 비자 면제 정책 연장
 - 중국 외교부 위챗 공식계정에 따르면, 작년 11월과 올해 3월 단기 비자면제 국가 12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스위스, 아일랜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상 일방 비자 면제 정책(단기 15일 이내 비자 면제) '25년 12월 31일(수)까지 1년 연장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여권 온라인 재발급 등 출입국 편의 조치 발표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중국 공민 대상 △여권·통행증 온라인 재발급, △홍콩·마카오 비즈니스(S) 목적 통행증 온라인 발급 및 체류기한 연장(7→14일) 등 출입국 편의 조치 발표
 - * 일반여권, 홍콩·마카오·대만 통행증 온라인 재발급 : 20개 지역 만 16세 이상 호구 소지자 중 일반 여권, 홍콩·마카오·대만 통행증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훼손, 분실, 사증란 소진, 유효기간 6개월 미만 등의 사유로 온라인 재발급 가능

□ 크루즈 동향

- 중국 크루즈 무비자 입국 항구 13개로 확대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중국 크루즈 무비자 입국 항구 기존 6개 (톈진, 상하이, 샤먼, 칭다오, 하이커우, 쑤야)에 7개(다롄, 련윈강, 윈저우, 저우산, 광저우, 선전, 베이하이) 추가, 총 13개로 확대. 해당 항구에 크루즈로 입국한 단체는 15일 이내 비자면제, 연안 성내 도시 여행 가능(단, 입국 항구/크루즈와 출국 항구/크루즈가 동일해야 함)
- MSC 영광호 7~9월 제주 입항 계획 일부 취소
 - MSC 지중해 크루즈, 5.9(목) MSC 영광호의 7~9월 운항 일정 변경 발표. 5회 항차의 제주 입항 계획 취소, 일본 체류 시간 추가

□ 통계 분석 및 예측

- 올해 1분기 중국 국내 관광객 수 14억 1,900만 명
 - 중국 문화여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국내 관광객 수 14억 1,9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 국내 관광 소비 1조 5,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
- 중국 1분기 크루즈 여객 수송량 19만 명
 - 중국 교통운수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올해 1분기 크루즈 여객 수송량 19만 명 달성 발표. 현재 총 21척의 국제 크루즈 중국에 기항지를 두고 운항 중
- 노동절 연휴기간 출입국 846만 명, 국내 관광 2.95억 명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노동절 연휴기간(5.1(수)~5(일)) 출입국 인원 총 846만 명, 일평균 기준 '19년 동기(845만 명) 대비 80.2% 회복
 - * '19년 노동절 연휴 4일(5.1~4), '24년 노동절 연휴 5일(5.1~5)

- 중국 문화여유부에 따르면, 올해 노동절 연휴기간 국내 관광객 수는 2.95억 명으로 일평균 기준 '19년 동기(1.95억 명) 대비 21.0% 증가했으며, 국내 관광 소비는 1,668억 위안으로 일평균 기준 '19년 동기(1,176억 위안) 대비 13.5% 증가

○ 주요 OTA, 노동절 연휴 관련 보고서 발표

- (취날) 해외여행 인기 목적지 태국,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필리핀, 호주로 집계
- (씨트립) 해외여행 인기 목적지 근거리 일본, 한국 및 동남아 로 집계, 특히 비자면제 효과로 싱가포르, 태국 입국 인원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 장거리는 미국, 호주, 영국 등 인기
- (통청) 해외여행 인기 목적지 방콕, 도쿄,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오사카 로 집계. 노선별로는 상하이-도쿄, 광저우-방콕, 칭다오-서울 노선 인기
- (페이주) 해외여행 중 80% 자유여행으로 조사. 해외여행 인기 목적지 태국, 일본,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마카오, 인도네시아 로 집계
- (투뉴) 해외여행 근거리 65%, 중장거리 35%. 해외여행 인기 목적지 근거리 일본, 태국, 몰디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로 집계. 중장거리로는 뉴질랜드, 터키, 이집트, 그리스, UAE 인기

□ 경쟁국 동향

○ (태국) 태국 국가관광청 등, 쿤밍에서 로드쇼 개최

- 태국 국가관광청·태국 촌부리 지방정부, 4.23(화) 쿤밍에서 <2024 태국 파타야 중국 로드쇼-쿤밍> 개최, 윈난성 및 인근 지역 여행 업계 30여 개 사 참여

- (말레이시아) 중국인 관광객, 6.1(토)부터 말레이시아 자동 출입국 심사 이용 가능
 - 말레이시아 내무부에 따르면, 6.1(토)부터 말레이시아 자동 출입국 심사 이용 가능 국가에 중국 등 36개국 추가. 말레이시아는 작년 3월 한국 등 10개국 대상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 이용을 허용한 바 있음(총 적용 국가 46개국, 최초 이용 시 이민국 심사 창구에서 여권 등록 및 확인 필요)
- (홍콩) 개별 관광 통행증 발급 가능 신규 8개 도시 대상 소비쿠폰 발행
 - 홍콩 행정장관, 홍콩관광공사에서 5.27(월)부터 홍콩 개별 관광 통행증 발급이 가능해진 8개 도시 대상 200 홍콩달러 상당의 소비쿠폰 발행 예정 발표
- (홍콩·마카오) 노동절 연휴, 중국 본토 관광객 홍콩 76.6만 명, 마카오 60.5만 명 방문
 - 홍콩 입국 사무처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기간(5.1(수)~5(일)) 76.6만 명의 중국 본토 관광객 홍콩 방문
 - 마카오 특별구 정부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기간 60.5만 명의 중국 본토 관광객 마카오 방문
- (필리핀) 필리핀 이민국, 중국 대상 비자 발급 요건 강화
 - 필리핀 이민국, “중국인이 필리핀 내에서 불법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대상 비자 발급 요건 강화. 필리핀 외교부에서는 남중국해 분쟁의 원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함

□ 기타 동향

- 쿠바, 중국 대상 비자면제 정책 시행
 - 쿠바 외무부, 5.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일반여권 소지자 대상 90일 이내 체류 시 비자 면제 정책 시행 결정 발표

- 스리랑카, 중국 등 대상 비자면제 정책 연장
 - 스리랑카 내각, 5.7(화) 중국 등 7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 지속 시행 발표
- 페파피그 아시아 최초 상하이에 아웃도어 테마파크 개장
 - 중국 아동들에게 인기가 많은 페파피그(Peppa Pig) 아웃도어 테마파크 상하이에 개장 예정. 2027년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기준 세계 최대 규모
- 호주항공, 시드니-상하이 항공편 7월부터 운항 중단
 - 호주항공, 수요 부족으로 7.28(일)부터 시드니-상하이 항공편(주 5회) 운항 중단